황성규 제2차관, “휴가철 앞두고 버스터미널 방역에 만전”

- 7일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찾아 코로나-19 방역태세 점검 -

-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7월 7일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을 찾아 코로나-19에 대응한 버스차량, 터미널 등 교통시설의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.

- 이날, 황성규 차관은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차량의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, 터미널 내 출·도착 승객 동선 분리, 이용자 거리 두기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실태를 점검하였으며, 코로나-19 확산의 철저한 예방을 주문하였다.
 - 터미널 및 버스업계에 대해서는 이용자 밀집장소인 버스나 대합실의 수시 소독 및 상시 환기, 터미널 이용자에 대한 발열체크 등 철저한 방역체계를 유지하고,
 - 이용객들에게도 차량 및 터미널 내 마스크 착용, 거리두기, 음식물 섭취자제 등 방역수칙을 이행하도록 수시 안내방송을 실시하여 코로나-19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.
 - 특히, 필수종사자인 운수종사자는 철저한 개인방역을 준수하고, 버스업계에서도 휴게실, 식당 등 공용공간의 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.

- 황성규 제2차관은 “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으며, 본격적인 여름휴가 및 방학이 시작되어 많은 국민들이 버스, 터미널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, 철저한 방역태세로 국민이 안심하고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”을 강조하였다.

2021. 7. 7.

국토교통부 대변인